

지역 소식통

정읍시, 김장체험 행사
북면 고모네 장터 광장

정읍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오는 21일과 22일 북면 고모네 장터 광장에서 2차 김장 체험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도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택배와 비대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된다.

2차 체험 참여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고모네 장터 로컬푸드장(☎03-534-7737) 또는 이메일(gomone7737@naver.com)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21일과 22일 엄선된 김장 재료를 시민들과의 접촉 없이 차량 안에서 수령하거나 편안하게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김장 체험 참가(재료)비는 절임 배추 20kg과 양념 10kg 세트 17만원, 절임배추 10kg과 양념 5kg 세트 9만원이다.

또, 30kg 김장김치는 19만원, 15kg 김치는 10만원이며, 사과 고추장과 참쌀고추장(1kg)은 각 1만8천원에 판매한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식초업체 등 참여
신맛나는 일자리 페스티벌

고창군과 고창군로컬잡(JOB)센터가 11일 오후 2시 고창읍 선운교문화회관에서 2020 고창군 신맛나는 일자리 페스티벌을 열었다.

행사는 식초문화도시 고창군의 식초산업 현황과 기능성 식초 등을 주민에게 알리고, 식초·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홍보와 구인·구직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부는 2020 전라북도 일자리 최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예산이 활용됐다. 상하농원, 참바다 배상면주가 등 고창군 내 15개 기업을 비롯해 고창군보건소,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전북광역새로일하기센터, 전북서민금융복지센터 등 전북과 고창군 내 일자리·복지 지원기관 13곳이 참여했다.

구직자를 위한 퍼스널컬러 컨설팅, VR면접, 이력서 사진촬영, 식초홍보관, 신맛을 맞춰라 등 다양한 취업 상담·컨설팅과 이벤트 행사도 열려 눈길을 끌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유전자변형농산물 퇴출”

고창군, 재배금지·안전관리 선포... 564개 마을 참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프리미엄 농산물 브랜드 주목

고창군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유전자변형농산물 재배금지와 안전관리를 의무화했다.

군과 의회의 조례제정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564개 전체 마을의 참여를 이끌어낸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프리미엄 농산물 브랜드’가 주목받고 있다.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창군 도산리고인돌(천제단) 일원에서 제2회 고창군 농업인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 재배금지

및 안전관리 선포식’을 열었다.

이번 선포식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포식은 축하영상 상영, GMO용 터프리기 등의 퍼포먼스와 마을이장단의 GMO재배 금지 서명서 전달, 유기상 고창군수의 토종종자 전달 식으로 진행됐다.

군은 날로 심각해지는 토종 작물의

퇴화와 계속되는 GMO식품의 안전성 논란에 대한 행정과 지역농민들의 선택적 대응 체계 구축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2월 전북 지자체 중 최초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힘써오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전국 최초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재배 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전지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유진섭 정읍시장이 지역발전 성장 동력에 발판이 될 2021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푼이라도 더” 지자체장들 국회로

유진섭 정읍시장

유진섭 시장이 지역발전 성장 동력에 발판이 될 2021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유 시장은 지난 10일 국회를 찾아, 상임위 단계 증액 사업의 삭감 방지와 미반영 사업의 예산 추가반영을 위해 막판 설득에 집중했다.

이날 유 시장은 윤준병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지역 현안 사업과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중점 대상 사업에 대해 당위성과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국비 반영을 위한 총력 대응 활동을 벌였다.

특히 상임위 단계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기반 구축사업(200억)과 백신 안전성 평가 인프라 구축사업(180억), 건강 기능성 펩티드 산업 플랫폼 구축사업(150억)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12일 문체위 소위 심사가 예정된 정읍 디지털미디어아트센터 조성사업(195억)에 대해서도 예정위 단계에서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김민석 의원(예결위)과 이형석 의원(행안위),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 등을 면담하고, 정읍시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가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유 시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오는 12월 2일까지 지속적으로 정치권과 중앙부처 한우 인사 등과 연계해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유기상 고창군수

유기상 고창군수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유기상 군수는 전날(10일) 내년 예산 심사에 본격 돌입한 국회를 방문해 주요 의원들을 만나 고창군 현안과 주요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건의 활동에 나섰다.

유 군수는 고창 출신인 홍영표 의원과 정운천 예결특위 의원을 비롯해 한병도 의원(행정안전위), 김승수 의원(문화체육관광위), 김희곤 의원(정무위) 등을 방문해 면담을 진행했다.

유기상 군수는 “노을대교(부안-고창) 국도건설, ‘구시로 연안항만 조성’, ‘고창갯벌세계유산 센터 건립’ 사업 등을 설명하며 국비확보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또 유 군수는 영광 한빛 원전폐쇄에 따른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개정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지방세법 개정 내용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됨에 따라 원전 가동으로 인한 인근 지역 피해 보상 성격의 지역자원시설세로 고창군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현안사업이다.

이외에도 상습침수지역 사전재해예방을 위한 강남지구 배수개선사업을 비롯한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뉴딜 300사업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지역경제 위기에 코로나19 상황까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다”며 “국회의원과 공조를 통해 한국군 뉴딜에 대응하고 충분한 지역적 여건을 활용한 관련 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주도형 선도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3일자로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이번달 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2일 최종 확정되게 되며, 고창군은 남은 기간 전북 정치권과 력을 통해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부안군, 국산 밀 산업 허브 구축 ‘착착’

제25회 농업인의 날 전국 소개 재배현황 · 생산가공 · 유통 등

부안 우리밀이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생중계를 통해 전국에 소개됐다.

부안군은 11일 오전 11시 11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이 참석해 생중계된 제15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유재홍 우리밀 영농조합 대표가 전국 밀 생산 농가를 대표해 인터뷰를 갖고 부안군의 국산 밀의 재배현황 및 우리밀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전반적인 내용을 말하였다.

이는 부안군이 국산 밀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8월 부안군 국산밀 산업 육성조례를 제정했으며, 11월 부안군 국산 밀 산업 육성위원회를 위촉하는 등 부안군이 국산 밀 산업 허브 구축에 노력한 성과중 하나이다.

특히 부안군에서는 지난 8월 부안군 한국식품연구원 용역을 통한 체계적인 국산 밀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으로 오는 12월중 완료한 예정으로 이는 부안군 밀 산업을 전문가에게 진단, 평가를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미래에 부안군 밀 산업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하게 된다.

특히 내년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사업 교육 컨설팅사업에 2개소 8천만원이 선정되어 국산밀의 맞춤형 생산체계 개선 및 농가교육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는 부안군 우리밀의 품질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자체 사업으로 우수한 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채종포10ha 운영 중이며, 국산밀의 생산장려를 위해 생산장려금도 지급중이다. 내년에는 채종포 20ha로 확대 및 우리밀 전문 소비업체를 육성하고자 2개소에 우리밀 시용확대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동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반려정원 체험



부안 동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11일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정서함양을 위한 반려식물 정원 만들기 체험 행사를 가졌다.

부안 동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명신·민간위원장 장종각)에서는 11일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정서함양을 위한 반려식물 정원 만들기 체험 행사를 가졌다.

이번 협의체위원 10명의 강사와 노인일자리참여 어르신 40명이 참여한 체험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직된 지역사회 분위기를 변화시킬 목적으로 식물과 교감을 통해 심신안정을 얻고 나눔의 배려가 있는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꽃을 심고 정을 나누는 힐링의 시간 체험과 더불어 건강관리·스트레스 해소 강사가 진행되며, 완성된 반려식물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이벤트도 마련해 참여한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부안=김석진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